전남도, 국비 747억 확보해 에너지산업 성장 기반 마련

기반시설 확충·기술개발·복지 등
육성과 중장기 발전에 탄력 받아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사업 추진도

자은도 육상풍력. /전남도

전라남도는 2024년 정부 예산안에 에너지신산업 분야 국비 747억 원을 확보해 미래 에너지산업 발전의 발판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반영 사업은 에너지 기반시설 확충, 기술개발 및 산업 지원, 에너지 복지, 인력 양성 등 에너지 분야에 시급한 사업으로 전남도 에너지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에너지 분야 기반시설 확충의 경우 ▲소재-소자-모듈-시스템 간 일련의 공정기술을 체계화한 실행기술 개발로 사업화를 조기 지원할 에너지신소재산업화 플랫폼 구축 56억 원 ▲차세대 그리드 반도체 센터 구축 3억 원 ▲해상풍력 융복합산업화 플랫폼 구축 25억 원 등이 반영됐다. 또 ▲도심 미관 정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전선로 지중화사업 16억 원 ▲온실가스 감축 및 전력계통 안정화를 도모할 소규모 분산에너지 통합관리 플랫폼 구축 20억 원도 포함돼 전남도의 에너지산업 육성에 탄력을 받게 됐다.

전력 기자재 등 기술개발 및 산업 지원 기반과 관련해선 ▲전기자동차 보급·확산을 통한 탄소중립 및 자원순환 경제실현을 도모할 친환경 부품 재활용 재제조 전환 기술 개발 40억 원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활성화 지원 17억 원 ▲노후 전력기자재 재제조 기술개발 및 기반 구축 30억 원이 반영됐다. 이와함께 ▲중소기업의 지능형 전력기자재 기술 개발 능력 향상을 위한전력기자재 디지털 전환 기반 구축 19억 원 ▲수전해 시스템 신뢰성 제고 기술개발 28억 원 ▲지역주력산업육성사업 20억 원 ▲미세먼지 저감형 굴뚝 폐열 활용 스마트팜 연계 운영기술 개발 및 실증 18억 원이 반영돼 에너지산업의 중장기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도민이 체감할 에너지 복지 관련 예산으로 ▲중규모 LPG 배관망 구축 55억 원 ▲화순광업소 광해방지사업 추진 100억 원 ▲재생에너지를 통한 지구온난화 방지 및 서민층 에너지비용을 절감할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112억 원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 5억 원 ▲가스누출 사고를 예방을 위한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 개선사업 6억 원 등이 반영됐다.

또한 지역에너지 클러스터 인재양성 사업 10억 원이 반영돼 전문지식 및 현장경험을 겸비한 수요 맞춤형 전문인력을 양성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전남도는 앞으로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에너지신산업 글로벌 혁신특구 조성 ▲탄소중립 대응 국가 실증연구단지 시범사업 ▲해상풍력단지 운영기술 공동 연구·실증기지 구축 등 추가 확보가 필요한 예산이 반영되도록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전남=양수녕 기자 ysn6313@metroseoul.co.kr

경남도, 도로사업 국가 예산 6900억
고속·일반국도 등 40개 사업 반영

내년도 사회간접자본 사업
함양~울산 고속도로 건설 등

서마산IC 불완전 교차로 현황. /경남도

경남도가 글로벌 경제침체에 따른 국가 세수 부족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도내 도로 건설을 위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국가 예산 6900억 원을 정부예산(안)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지난 1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따르면 도내 도로 사업 국비 예산은 6900억 원으로, 고속국도·일반국도·국가지원지방도 40개 사업이 반영됐다.

주요 사업으로는 ▲함양~울산 고속도로 건설(2419억 원) ▲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 건설(1553억 원) ▲무계~삼계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436억 원) ▲남해~여수 국도77호선 건설(400억 원) ▲한림~생림 국지도60호선 건설(216억 원) ▲대동~매리 국지도69호선 건설(200억 원) ▲송정IC~문동 국지도58호선 건설(374억 원) 등이 있다.

특히 도심 주택지와 직결되고 순천방향 진출입로 차량 엇갈림 현상으로 상시적인 차량 정체 및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남해고속도로 서마산IC 일원의 구조 개선을 위한 설계용역비(2억 원)가 반영돼 시설개선사업이 조기에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남=김영찬 기자 metrobusan3@

부산시, 국내외 ICT 전문가에 역량 뽐내
〈정보통신기술〉

'K-ICT WEEK in BUSAN' 개최

부산시가 국내 대표 종합 정보통신기술(ICT) 전시 행사 개최로 '2030세계박람회' 개최 후보도시 부산의 역량을 국내외 ICT 전문가들에게 선보인다.

부산시는 오는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2023 K-ICT WEEK in BUSAN'을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9회째를 맞는 K-ICT WEEK in BUSAN은 영남권 최대 규모로 열리는 종합 ICT 전시 컨벤션 행사다. 국내외 ICT 전문가들과 인공지능(AI), 메타버스, 클라우드, 양자정보기술 등 최신 ICT 동향을 공유하고 신규 판로 개척 등을 통해 지역 ICT 산업시장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된 교류의 장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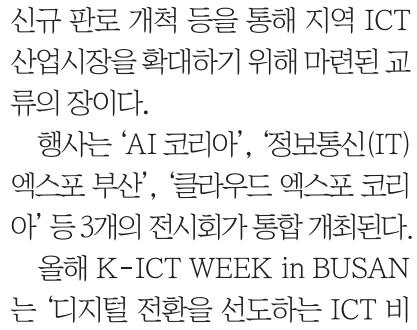
행사는 'AI 코리아', '정보통신(IT) 엑스포 부산', '클라우드 엑스포 코리아' 등 3개의 전시회가 통합 개최된다.

올해 K-ICT WEEK in BUSAN는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는 ICT 비즈니스'를 키워드로, 다양한 ICT 기업 최신 기술·제품은 물론 제조, 해양, 금융, 물류 등 주요 산업과의 ICT 융합 현황과 접목 기회를 한눈에 선사할 계획이다.

/부산=김영찬 기자

전남교육청, 내년부터 '기초정원제' 도입

학령인구·교원정원 감축에 대응


학령인구 감소와 대규모 교원정원 감축으로 전남의 교육환경이 크게 악화됨에 따라 2024학년도부터 '전남형 기초정원제'를 도입해 추진키로 했다. /전남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이 학령인구 감소와 대규모 교원정원 감축으로 전남의 교육환경이 크게 악화됨에 따라 2024학년도부터 '전남형 기초정원제'를 도입해 추진키로 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전남은 공립 중등의 경우 323교 중 173교(53.6%)가 6학급 이하 소규모학교이며, 교원 정원 배정 부족으로 전체 소규모학교가 겸임·순회교사제를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41교(12.7%)가 도서·벽지 지정학교인데, 도서 지역은 겸임·순회 및 기간제교사 선발에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2024년에는 '전남형 기초정원제' 1단계로 도서 지역 중·고등학교의 안정적인 교육과정 운영 지원을 위해 도서 지역 14개 학교에 정규교사를 추가 배치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도서 지역 중·고등학교에 정규교원이 배치되면 기간제교사 채용이 어려운 도서 지역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9월 전남에 대해 329명(초등 50명, 중등 279명)의 대규모 교원 정원 감축을 단행했다. 이와 관련, 도교육청은 김대중 교육감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통해 교원정원 감축 반대 입장을 강력히 밝혀왔다.

/전남=양수녕 기자

경북도, 온·오프라인 농특산물 특판행사

명절성수품 물가 안정·소비촉진
사이소·네이버·바로마켓 등서 진행

경북도는 추석을 앞두고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특산물을 다양한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합리적인 가격의 특판 행사를 개최한다.

최근 집중호우와 폭염, 태풍 등 이상기후로 채소·과일 등 농산물 가격이 상승하고 농특산물 극성수기인 추석이 다가옴에 따라 제수용품, 명절성수품의 물가안정과 농특산물 소비촉진을 위해 다양한 할인행사와 직거래 행사를 열기로 했다.

우선, 온라인 행사로 경북 고향장터 '사이소'에서는 이달 30일까지 한가위 선물세트 특별기획전을 통해 구매 금액별 최대 25% 할인쿠폰을 제공하고 제휴몰인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SSG닷컴을 통해서도 한가위 기획전과 할인쿠폰을 제공한다.

오프라인 행사는 대도시 소비자 대상 정례 직거래 장터로 자리를 잡고 있는 바로마켓 경북도점(대구 북구 소재)에서 제수용 농산물 할인 판매, 축산물 특판 행사를 매주 개최한다.

이어, 경북도는 타 도시에서 주최하는 직거래장터에 참여해 경북 우수 농특산물을 홍보·판매할 계획이다.

/경북=장영우 기자 ycyw57@

지역 이모저모

전남도

배 재해보험금 63억 지급

전남도가 올봄 개화기 과수 저온피해를 입은 배 재배 농가에 농작물 재해보험금 63억원을 지급했다.

전남 지역에선 지난 4월9일까지 3일간 기온이 영하 2도까지 떨어져 배 등 과일 착과불량, 양파 잎 마름 등 생육 불량 피해가 발생했다.

5일 전남도에 따르면 시.군별 지급액은 나주 47억3000만원, 영암 6억9000만원, 장성 2억원, 함평 1억5000만원, 순천 1억3000만원, 곡성 1억1000만원 등이다.

사과 저온피해를 입은 116농가에도 8억원의 보험금이 함께 지급됐다. /전남=양수녕 기자

나주시

노인복지시설에 AI Vision 도입

전라남도 나주시(시장 윤병태)가 한전KDN의 인공지능 영상분석 기술(AI Vision)을 관내 노인복지시설에 도입한다.

나주시는 지난 4일 노인복지시설의 안전사고 예방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한전KDN과 업무 협약식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한전KDN은 노인복지시설 이용자들의 안전과 시설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인공지능 영상분석 시스템을 개발했다. 화재나 연기, 수신호, 쓰러짐, 배회, 위험지역 접근 등을 감지해 선제적인 대응이 가능하다.

/나주(전남)=양수녕 기자

경북도

어린고기 100만 마리 방류

경북도 수산자원연구원 토속어류산업화센터는 어자원 생태계 유지·보전 및 어자원 조성을 위해 지난 8월 17일부터 8월 31일까지 도내 21개 시·군에 잉어류 등 어린고기 100만 마리를 저수지 및 낙동강 수계 지류 하천 등에 방류했다.

이번에 방류한 잉어류 60만 마리와 미꾸리 40만 마리는 토속어류산업화센터에서 관리해 온 건강한 어미로부터 올 5월부터 인공수정 및 부화 과정을 통해 약 4개월간 길러 총 160만마리(잉어류100, 미꾸리 60만)의 우량 종자를 생산했다. /경북=장영우 기자

창녕군

'민속 소힘겨루기대회' 개최

창녕군은 오는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 '제24회 창녕 상설 민속 소힘겨루기대회'를 부곡온천 관광특구 내 창녕소힘겨루기 경기장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상설대회에는 창녕지역 소 40두를 비롯해 청도·의령지역 등 전국에서 54두가 출전해 총 94두가 경기에 참여할 예정이다.

경기방식은 단판승 방식으로 체급별 경기와 창녕 힘겨루기 육성우 시범경기가 펼쳐진다. 특히, 이벤트 경기로 최고 기량을 자랑하는 '선수'와 '순금'의 경기는 관람객에게 특별한 재미를 선사할 것으로 보인다.

/창녕(경남)=이도식 기자 metrobusan@